오감만족 남도답사 1번지 내년 강진 방문의 해 선포

민선 6기 들어 '감성관광 1번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2017년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강 군수는 강진이 지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관광자원을 총집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내년은 '강진(康津)'이란 지명이 탄생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조선시대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한 육군 총본부였던 전라병영성이 병영면에 축성된 지도 600주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해라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2017년은강진 방문의 해 성공 자신=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2일 강진읍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제44회 군민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2017년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유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 군수는 "지난 2년간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강진이 가진 모든 자원을 총결집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군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성공에 대한 열망과 의지만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강 군수는 특히 "내년 경제 전망을 보면 국내외적인 불황 등이 겹쳐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위기에 강한 강진군민과 함께 불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발상의 각오로 준비한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아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강진지명·병영성 600주년·경세유표 200주년 마케팅 강화=강진군은 최근 '남도답사 1번지'라는 강진의 기존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과 강진만 생태공원 등 새롭고 특색있는 자원을 더해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은 강진 역사상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해로, 강진 방문의 해 추진 등을 통해 강진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치단체로 만들어내겠다는 게 강진군의 구상이다.

강진 2017년 뜻깊은 역사는

지명 탄생 600주년
전라병영성 축성 600주년
고려청자 재현 40주년

강진의 관광자원은

가보고 싶은 섬 가우도
마량놀토시장·초당림 등 풍성
하반기 세계모란공원 조성

강진군의 준비는

전담 추진기획단 신설
민관협력추진위원회 곧 출범
강진원 군수 "군민 힘모아 성공"

2017년은 '강진(康津)'이라는 지명이 탄생한 지 600주년이 되는 해다. 1417년(조선 태종 17년) 도강현 일부와 탐진현을 합쳐 강진현이라 명명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년은 또 조선시대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한 육군 총본부였던 전라병영성이 강진군 병영면에 축성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특히 내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시절 집필한 3대 저서로 꼽는 '경세유표'를 저술한 지 200주년이 되고, 강진군이 천년 비색을 자랑하는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로 관광산업 융성=민선 6기 강진원 군수 취임 이후 문화관광 자원을 새롭게 발굴·개발하면서 방문 관광객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된 가우도를 비롯한 마량항 놀토 수산시장, 오감통 음악창작소, 초당림, 보은산 V랜드 등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영랑생가 주변에 세계모란공원과 도암면 석문산 석문공원 사랑·구름다리, 강진만 생태공원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감성여행 콘텐츠 역시 풍부하다. 강진을 대표하는 다산과 영랑이라는 양대 콘텐츠와 함께 수학여행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감성 푸소(FU-SO)체험을 비롯한 입맛 당기는 한정식 등 먹을거리도 강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매력있는 문화관광 아이콘이다.

또 강진산 농수축산물에 감성문화마케팅을 입혀 이른바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와 도시권 고객의 직접 방문을 이끌어내는 팜파티, 팸투어 등 강진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강진군민들, 친절·청결·신뢰로 손님맞이 '최선'=강진군은 군민들과 함께 내년 강진 방문의 해를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강진군민의 폭발적인 열망과 의지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

강진군민들은 지난해 전남지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경쟁에 나섰던 전남공무원교육원 유치와 강진고등학교 거점고 확정 등 지역발전을 결정하는 길목 길목마다 일심동체는 빛을 내기도 했다.

강진군은 강진 방문의 해 선포를 계기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군 기획홍보실 내에에는 전담 추진기획단도 신설됐다. 강진군은 또 각계각층 군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추진위원회도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군청 실·과·소별로도 사전 준비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연중 로드맵을 수립해 매주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계획을 수립중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다산초당
영랑생가
남문과 진남루

가우도 출렁다리

강진청자박물관